



에타는 관중석과는 달리 느긋한 '호랑이 군단'의 덕아웃이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4월14일 이후 단독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폭발적인 화력과 안정된 선발진의 힘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뒤,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 영웅들의 활약으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NC가 무서운 전력으로 난 경기 차 밖까지 몇 차례 쫓아오기도 했지만 일단 1위로 한 주를 마감하게 된 KIA. 긴박한 승부의 연속이지만 KIA 선수단은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우리 길만 간다"며 느긋하다.
지난 17일 KIA는 1위 수성의 고비를 맞았다.
2위 NC가 0.5게임 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날, 앞선 두 경기에서 '난세의 영웅'이 됐던 장용운이 LG와의 승부에 일찍 흔들리며 3회까지 3실점을 했다. 상대 선발은 이날이 거듭될수록 위력이 더해지는 소사.

‘박빙’ 1위 싸움에도 느긋한 호랑이...왜?

‘난세 영웅’ 있음에

임시 선발 정용운 활약...한승혁 등 불펜 안정

‘자신감’ 넘치기에

“우승기회 왔다...승패 상관없이 준비한 길 간다”

김기태 감독은 평소와 다르게 선발을 일찍 내리는 ‘픽 후크’로 승부수를 던졌다. 그리고 정용운에 이어 전날 2이닝 퍼펙트쇼를 보여준 한승혁을 4회에 투입하는 강수를 뒀다. 점수가 더 벌어지면 경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승혁은 2이닝 1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응답했고 이어 출격할 고효준-손영민-심동섭-김윤동까지 6이닝 무실점을 합작했다. 그리고 KIA는 올 시즌 평균자책점 꼴찌 싸움을 하던 불펜

의 반전 속 안치홍의 결승 홈런으로 4-3 승리를 거뒀다.
이날 경기의 주인공이 된 안치홍은 1위 싸움에 대한 부담감을 묻는 말에 “무조건 이겨야 한다, 오늘 지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시즌 시작할 때부터 우리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 1위 싸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시즌을 보내다 보면 1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하던 대로 하면 다시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되 ‘오늘 지면 내일 이기면 된다’는 마음으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선수들이다.
덕아웃에서 1위 싸움을 하는 선배들을 지켜보는 ‘막내’ 최원준의 마음도 같다. 최원준은 “정말 선배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찬스때 어떻게 치고, 승부를 하는 지를 배우고 있다. 1위에서 추격을 받는 입장이지만 쫓기는 것 없이 한 경기 한 경기 즐겁고 최선을 다하자는 분위기다. 쫓기는 모습이 없다. 또 선배들이 ‘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셔서 나도 부담 없이 경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동욱의 이야기도 비슷하다. 서동욱은 “선수들이 모두 (우승)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감도 넘치고 분위기도 좋다. 프로에서 우승 경험 없는데 꼭 우승하고 싶다”고 웃었다.
멀리 보면서 가을로 가고 있는 선수들, 사령탑 김기태 감독도 “(지난 한 주) 보시는 분들을 재미있었을 것 같다(웃음). 그만큼 박빙의 승부였다”며 “초심 잃지 않고 묵묵하게 재미있게 시즌 보내겠다”고 밝혔다.

김기태 감독 “매진 5할 승률 맞추겠다”

포커페이스 김윤동 “사실은 떨려요”

덕아웃 T톡톡

▲5할 맞추겠다
‘약속왕’ KIA 김기태 감독이 ‘매진 5할 승률’이라는 새 공약을 발표했다. KIA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난 17일 챔피언스필드 2만500석을 가득 채우면서 시즌 8번째 매진을 기록했다. 2014년 최다 매진이었던 7회를 뛰어넘는 새 기록이다. 하지만 매진 소식에 팬들과 관계자들은 긴장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KIA의 올 시즌 매진 경기 성적이 1승6패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KIA는 이날 4-3의 신승을 거두며 징크스를 깬다. 18일 “매진 경기 승률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기태 감독은 “(매진 경기) 5할 승률을 맞추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성실하게 공약을 이행했던 김 감독이 ‘5할’ 목표에 도전한다.

▲감독이 보고 있는 거 하나 봐
17일 김기태 감독이 “감독이 보고 있는 것 하나 봐”라며 웃음을 터트렸다. 이날 한평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퓨처스리그 경기를 두고 한 이야기였다. 이날 KIA와 고양 다이노스와의 경기가 TV로 중계되던 김 감독은 화면을 통해 퓨처스 선수단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리고 이날 KIA는 좌완 임기준의 5이닝 1피안타 1볼넷 6탈삼진 1실점 호투 속, 오준혁·백용환·이호신의 홈런포 포함 장단 14안타로 14-5 승리를 거뒀다.

▲부탁이 있습니다
투수 한승혁이 지난 17일 덕아웃에서 주말 LG전 중계를 담당한 스카이 스포츠의 임용수 캐스터와 마주했다. 임 캐스터를 본 한승혁은 “부탁이 있다”며 입을 열었다. 투수 한승혁의 부탁은 바로 ‘이름’이었다. 방송 중계를 하면서 많은 분이 후배 한승혁과 이름을 헷갈려한다는 게 한승혁의

이야기였다. 한승혁은 “팀에서도 나를 보고 승택이라고 하고, 승택이를 보면서 승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웃었다.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은 덕수고 동문으로 한승혁이 2년 선배다.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자신감이 떨어졌던 서동욱의 시원한 한방이었다. 한화-넥센과의 홈 6연전이 열렸던 지난주 서동욱은 “올 시즌 홈런존 1호 주인공이 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비활과 달리 2루타 3개만 기록했던 서동욱은 17일 LG전을 앞두고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웃었다. 하지만 자신감이 떨어졌던 서동욱은 18일 1회말 2사 만루에서 LG의 두 번째 투수 최동환의 130km의 슬라이더를 받아 우측 담장을 넘겼다. 홈런 존을 비켜 가기는 했지만 자신감을 갖기에는 충분했던 타구. 이 홈런으로 서동욱은 지난해 6월19일 잠실 LG전 이후 생애 세 번째 만루홈런을 기록했다.

▲사실 떨려요
포커페이스의 김윤동이지만 아직은 경험을 쌓고 있는 어린 투수다. 김윤동은 임용수의 부진과 이탈 속에 올 시즌 필드포를 넘어 마무리 역할까지 하고 있다. 주중 롯데전 3경기에 모두 나와 1승2제이브를 기록한 김윤동은 17일에도 LG를 상대로 세이브를 추가했다. 하지만 18일 김윤동은 “아직도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어제는 내가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다”고 미소를 지었다. 옆에서 김광수도 “끝나고 떨더라고 하더라”며 웃었다. 김윤동은 “선배들이 지금은 눈에 확 보이는 건 없지만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좋은 경험이 된다고 말씀 해주신다. 기록 쌓아가는 재미도 있다”며 “통산 2승 투수가 됐는데 (심)동섭이 형이 12승이다. 동섭이 형을 넘는 투수가 되겠다”는 농담을 했다.



서동욱 만루홈런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 경기 1회말 2사 만루에서 KIA 서동욱이 그랜드슬램을 쳐 홈을 밟은 후 선발투수 안치홍, 나지완, 이범호의 환영을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류현진 30일만에 3승... 1021일만에 원정 승리

신시내티전 5이닝 2실점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원수 투수 류현진이 시즌 3승(6패)째를 올렸다.
류현진은 18일 신시내티 레즈와의 방문 경기에서 5이닝 동안 안타 8개를 맞고 2실점 하며, 지난달 19일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 2승째를 거둔 이래 30일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또 2014년 9월 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이래 1021일 만에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다.
옛새 전 4이닝 동안 홈런 3방에 4실점 하며 승패 없이 물러난 신시내티를 상대로 타선 지원 속에 맞지게 설욕했다.
류현진은 이날 올 시즌 한 경기 최다인 105개의 공을 던져 65개를 스트라이크로 쏘았다. 장타를 의식해 불을 낮게 던지느라 초반 투구 수가 많았지만 세 경기 만에 홈런을 허용하지 않았다. 최고 시속은 151km. 삼진은 올 시즌 한 경기에서 두 번째로 많은 7개를 쏘아냈다.
1-0으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첫 타자 빌리 해밀턴에게 우전 안타를 내준 뒤 2번 타자 척 코츠에게 좌전상 2루타를 맞으며 동점을 허용했다. 무사 2루 추가 실점 위기에서 조이 보토를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한 류현진은 4번 타자 에덤 뉘발도 중견수 뜬공으로 잡았다. 또 에우헤니오 수아레스를 삼진 처리하며 불을 껐다.
류현진은 2회에도 안타와 볼넷으로 1사 1·2루 고비를 맞았지만, 투수에서 위치 저하우스키를 우익수 뜬공으로 요리한

뒤 해밀턴을 시속 150km짜리 빠른 볼로 삼진으로 슈어내고 한숨을 돌렸다.
다저스 타선은 1-1인 3회 초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 선두 타자로 나온 류현진이 볼넷을 뒀다.
류현진은 시속 148km 공을 잡아당겨 유격수 쪽으로 강속 타구를 날렸고, 유격수 실책으로 1루를 밟았다. 코리 시거의 볼넷으로 2루에 간 류현진은 테일러의 좌월 2루타 때 홈을 밟았다. 곧바로 벨린저가 우월 투런포, 즉 피더슨이 솔로 안타를 잇달아 그려 다저스는 6-1로 달아났다.
류현진은 공수교대 후 신시내티 중심 타선에 연속 3안타를 맞고 최대 위기에 놓였다.
류현진은 무사 만루에서 수아레스에게 2013년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했다. 6-2로 쫓긴 채 계속된 무사 만루에서 류현진은 스코트 볼러를 유격수 직전타로 잡아낸 뒤 호세 페라사를 투수 앞 병살타로 요리해 대량 실점 고비를 넘겼다. 한편 류현진은 4회 공격에서 볼넷을 골라 시거의 적시타 때 홈을 밟는 등 처음으로 한 경기 2득점을 올렸다. <연합뉴스>

추신수 10호포 ‘황’ 2년만에 두자릿수 홈런

‘추추트레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0호 안타를 기록하며 2년 만에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다.
추신수는 18일 2017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팀이 8-4로 앞선 6회말 1사 1루에서 중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다.
추신수는 시애틀의 2번째 투수 댄 알타벨라의 초구 97.6마일(약 157km)짜리 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시즌 10호.
지난 12일 워싱턴 내셔널스전 이후 5경기 만에 터진 홈런포로, 추신수는 2015년(22개) 이후 2년 만에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지난해 7홈런으로 5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실패했다.
추신수는 이날 홈런 포함 5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의 맹타를 휘두르고 팀의 10-4 승리에 힘을 보탤다.
추신수는 이로써 3경기 연속 안타와 12경기 연속 홈루 행진을 이어갔다. 시즌 타율은 0.257에서 0.261(211타수 55안타)로 올라갔다. <연합뉴스>

선제골에도...광주 FC ‘달빛 더비’ 무승부



대구 FC와 2-2 비겨

광주 FC가 재개된 K리그 클래식 무대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 FC가 지난 17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 FC와의 2017 K리그 클래식 14라운드에서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포항 스틸러스 원정 이후 긴 A매치 휴식기를 보냈던 광주는 선제골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지만, 승점 3점 획득에는 실패했다.
‘달빛 더비’의 포문을 연 것은 조주영이

었다.
전반 9분 송승민의 패스를 받은 조주영이 대구 한희훈에 밀려 넘어지면서 페널티 킥이 선언됐다. 조주영은 직접 키커로 나서 대구 골대 왼쪽을 뚫었다.
하지만 광주가 대구 세징야(전반 32분)과 레오(전반 39분)에게 연달아 페널티킥으로 골을 내주면서 전반전은 1-2로 마무리됐다.
후반 시작과 함께 광주가 반격에 나섰다.
그리고 후반 15분 이번에는 김민혁이 주인공이 됐다. 주현우의 패스를 받은 김민혁이 시원한 오른발 중거리 슈트로 골망을 흔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남기일 감독은 후반 40분 정용총을 시작으로 여봉훈, 이종서를 투입하면서 마지막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추가골을 만들지 못하면서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민경호 ‘투르 드 코리아’ 한국 첫 우승

국제사이클연맹 2.1 등급

민경호(서울시청)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도로사이클 대회이자 국제사이클연맹(UCI) 2.1등급 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에서 한국인 최초로 종합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민경호는 18일 오전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출발해 다시 올림픽공원까지 65km를 달리는 ‘2017 투르 드 코리아’ 대회 최종 5구간 레이스서 옐로 저지(종합 선두)를 지켰다.
그는 1~5구간 최종 합계 17시간 47분 46초를 기록하며 2위 아빌라 바네가스에 드린 알시비아데스(일루미네이트)를 7초 차로 따돌렸다. 전날까지 종합 2위였던 에브레니 기디치(비노 아스타나)는 1초 차 3위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이로써 민경호는 한국 사이클 역사를 새로 썼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2.1등급 대회에서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지난 2012년 박성백(KSPPO) 이후 5년 만에 대회 정상에 올랐다. 투르드코리아가 UCI 아시아투어 2.1 등급으로 승급된 것은 2014년이다.
민경호는 ‘베스트 영 라이더’(23세 미만 최고 성적 선수)에게 주어지는 흰색 저지도 차지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그는 종합 우승 상금으로 1750만원, 2구간 우승 상금으로 700만원에 ‘베스트 영 라이더’ 상금 등을 더해 총 2500만원이 넘는 상금을 챙겼다.
한편, 지난 14일 여수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군산, 무주, 영주, 충주, 서울을 거쳐 5일간(778.9km)의 대장정을 마쳤다. <연합뉴스>